



한국 낙농산업의 발전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 현 옥

오늘의 한국 낙농

낙농은 인류가 먹는 곡물이나 채소를 기르기가 힘든 땅에다 풀을 길러서 풀사료만을 먹고 사는 젖소에게 먹여서 고귀한 인류 최고의 식품인 우유를 생산하는 농업이다. 그리고 우유를 사용하기 좋고 맛있는 각종 유제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유가공 산업이며 이 전체를 우리는 낙농산업이라고 한다. 낙농산업은 우리에게 우유와 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영양과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국토를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낙농산업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낙농진흥 정책을 추진한지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낙농산업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으며 현재 3만 6천호의 낙농가가 61만 5천두의 젖소에게 176만톤의 우유를 생산함으로써 1년에 국민 1인이 40kg의 우유를 먹게 되었다. 우유의 소비층대가 국민, 특히 자라나는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국민의 우유소비가 발전 정착하는 것은 4천5백만 한국 국민의 영양과 건강이 발전하는 것이고, 3만 6천호에 달하는 낙농가의 생활이 발전 정착하는 것이며 약 5만 여명의 유렵계 종사자와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낙농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한국 국토의 생산성이 발전보전되는 것이며 농민이 농촌을 지켜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 낙농산업은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 왔지만 현재 겪고있는 한국낙농의 어려움은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 어려움은 정부와 낙농계가 오래전부터 한국 낙농의 발전·정착을 소홀히 해온 결과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농민이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들여 생산한 우유를 버리는 현상과, 유업체의 유대지불 능력의 소진으로, 유대를 제품으로 지불하는 등 낙농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유업체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낙농계의 시련은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낙농 구조의 조정과 낙농계의 혁신적인 개선의지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낙농업이 본래 낙농업계 산지 및 초지낙농으로 구조가 전환 되어야 하며, 낙농산업계 자체가 수급조절 능력과 발전기반 구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투자와 홍보로 발전적으로 재조정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시기라고 믿어진다.

한국 낙농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우유를 생산하는 것 이외의 낙농의 다른 큰 기능은 작물을 생산하기 어려운 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토가 거의 산으로 된 우리나라는 작물을 생산할 땅이 적으며 따라서 국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낙농을 하여 산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농촌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도

시로 몰려들고 있으며 농촌은 노인들의 손에 맡겨 지거나 버려지고 있으며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것은 국토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누가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생명인 농토를 버리게 만들었는가? 국가는 농민들이 금싸라기 같은 이 국토를 버리고 포기해도 좋다는 말인가. 시골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국토는 황폐화되지 않고 땅의 생산성이 유지 향상 되는 것이며 국토가 보전되는 것이다. 현재 농민은 농사나 축산을 하여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며 농촌과 산촌은 황폐화 되어가는 것이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넉넉히 살고 자녀교육도 잘 시킬 수 있어야 시골에서 살 의욕이 생기는 것이며 농민이 시골에 살아야 국토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전되는 것이다. 산지와 시골에서 농민이 낙농을 하며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생산되는 거름이 땅으로 들어가서 산과 들의 생산력이 증진되고, 국토 보전이 잘되는 것이며 생산되는 우유는 더욱 신선하고 좋으며, 도시근교의 오염도 줄어 들 것이고, 도시로 사람도 몰리지 않게 될 것이다. 국가는 농민이 농촌·산촌에서 잘 살게 해 주므로써 그들이 국토의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국토를 보전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국토의 개발관리와 인국정책은 국가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며 낙농업이 이러한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유 산업은 어디로 갈까

한국의 유가공산업은 낙농업의 성장과 함께 자라서 오늘날에는 1조 2천억원의 매출규모와 5만여명의 종사자를 가진 거대한 국민산업이 되었다. 한국의 우유산업은 전 국민에게 특히 자라나는 국민에게 우유를 공급해서 국민의 영양과 건강 및 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시골의 구멍가게에서도 우유를 쉽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되었고, 국민에게 낙농업이 생산한 원유를 시유와 유제품으로 공급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여를 해 왔다. 많은 선진 낙농국의 우유산업을 낙농조합이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개인 우유산업은 초기에 낙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날에도 우유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낙농조합의 시장점유율이 성장은 하겠지만 앞으로 개인유업체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지향적 유제품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유제조 문제는 우유의 수급조절능력이 없는 당국의 단견적 행정과 경기의 회복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낙농산업은 건실한 발전적 제도의 구축에 그 상황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유업체는 유제품 배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배달·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최종 유통단계의 사고발생 위험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한국의 유업체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생명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매출액이 접합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 유업체의 산물은 유제품이며 유제품만이 유업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체이며 유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야 유업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유업체는 치즈와 yogurt의 생산에 더 많은 연구와 개발노력이 있어야 하며 casein과 유청제품, 유청단백질, 유당당 단백질 및 유청가공 시설도 시급히 확장해서 버리는 유청의 가공이용을 시도해야 한다. 우유와 유제품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가치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교육해야 하며 지나친 업계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홍보, 국민교육, 학교급식 등에 유업체가 공동노력을 강화 하므로써 유업체 홍보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러한 유업체의 발전적 과제들을 현유업체 단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의 지속적 발전과 예산의 지원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한국의 낙농산업은 한국국토와 한민족을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제 한국 낙농산업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할일은 발전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하는 일이며 국민 앞에 낙농의 중요성을 진실되게 알리는 일일 것이다.